

노동부, 9~10월 2개월간 전국 43개 유기용제 사용사업장 점검실시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D전자 소속 근로자 15명이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은 유기용제로서 전기전자부품 세척제로 주로 사용되며 작업자에 노출될 경우 결막염, 현기증,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부정맥, 중추신경 장해 등을 유발한다.

이는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여 해당 작업자는 물론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까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유기용제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는 전국 43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8월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실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이다.

노동부 안산지청-안산 시화·반월공단 최악의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나리오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8.17 발생한 시화공단 독성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대량 취급업체 총 42개사의 주요시설에 대한 최악의 누출사고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사

고발생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비상대응(On-Site Emergency Response)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시화·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발간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의 발달과 신규화학물질, 신공정 등의 출현에 따라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안전공학 △기계 △건설 △건강 △산업의학 등 8개 분야별 용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폭넓게 담고 있는 이 용어사전은 총 920페이지 분량에 3600개의 용어를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여 초보자도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용어사전은 과거 사전적 의미로만 존재하던 용어와 새로운 물질, 질병 등의 용어들을 현장의 실정과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리 하였다”면서 “이번 용어 사전의 발간을 통해 국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적·학술적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